

'98 유가공산업



이홍구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1. 머리말

참으로 세월이 빠르다. 연말까지는 아직 얼마간 남았다고는 하지만 한 해를 뒤돌아 보아야하는 시기가 되었으니 말이다. 어느 해치고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해가 없었다.

그러나 올 한해같이 힘들고 위기 상황에서 지내보기는 처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년 전 국가경제가 도산 위기로까지 몰려 IMF(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국제금융을 받아야하는 IMF체제가 시작되고 전국이래 50년만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야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문민정부가 국민정부로 바뀌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갑자기 불어닥친 IMF 환파는 원

화 가치를 순식간에 배로 떨어트렸고 수입원부자재 값의 폭등과 확보난을 가져다주었으며 연일 이어지는 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따라서 소비둔화는 산업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배합사료 가격이 갑자기 치솟고 원유가격이 오르고 유제품 가격이 오른 데다가 경제불황, 실업률 증가, 겨울철 비수기가 겹쳐 소비가 급속히 둔화되고 재고누증이 유가공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일부 업체가 부도가 나고 원유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낙농산업의 기반 붕괴를 우려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다.

이에 IMF 경제체제 원년인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30여년간 피와 땀으로 이룩한 낙농산업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협회가 가지고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우유 수급상황에 대한 전국통계가 정부 전산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집계가 제때 되지 않고 있어 전국수치를 활용하지 못한 점은 이쉽게 생각한다.

2. 원유 생산현황

국내 원유 생산은 지난 80년대까지는 고도성장을 해왔으며 90년대 들어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

여 97년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성장을 나타냈다.

이는 96년 하반기를 기해 모든 유제품 수입이 완전 개방됨으로서 낙농가들이 심리적인 타격을 받았고, 농촌 노임의 상승, 영세규모 낙농가의 폐농, 환경오염원의 단속 강화, 조사료 확보난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IMF체제 원년인 금년으로 접어들면서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1월에서 7월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되었고 8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는 있으나 연말까지의 생산추정을 해보면 하반기 감소세가 전반기 증가세보다 낮은 관계로 연간 총 생산량은 약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상반기 증가된 요인으로는

① 국내 경제사정 악화로 쇠고기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어 소 값이 하락하므로서 저능력우 도태를 적기에 하지않고 보유하고 있던 데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예로 93년 이후 55만두 전후로 유지해오던 젖소 사육두수가 97년말 544천두에서 금년 3월에



는 568천두로 3개월 사이에 무려 24천두가 늘어난 것만으로도 알 수 있다.

② 그 동안 누적되어온 요인과 IMF과동후 급등한 배합사료 가격 등으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였지만 금년 1월1일부로 원유가격을 평균 18.4%라고 하는 높은 인상이 낙농가들의 상황대처를 느슨하게 해준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③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성수기든, 비수기든 남아서 분유로 쌓아놓던, 전량 수매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왔다. 그러다보니 낙농가로서는 수급에 다소 등한시해질 수밖에

에 없었던 것들이 원유생산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8월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선 요인으로는

① 겨울철 비수기에 예상 밖으로 재고분유가 과다하게 쌓이자 일부 유가공업체가 자구노력의 하나로 원유 쿠퍼제를 시행하고 또는 한시적으로 원유가격을 인상전 가격으로 지불하는 사례가 일어났고 전유가공업체가 농가에게 지급하던 유질개선비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낙농가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해 주었고

② 일부 유가공관련조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태장려금으로 두

<표 1> 원유 생산현황

(단위 : 톤, %)

구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96	150,601	145,866	161,079	158,554	161,383	147,152	144,415	140,256	141,504	142,650	135,136	142,593	1,771,229
97	148,568	139,524	156,714	154,091	156,744	144,704	142,673	140,328	136,506	138,360	132,469	141,614	1,732,295
98	152,005	141,388	161,121	157,888	157,589	146,677	144,331	138,067	(133,912)	(135,385)	(129,157)	(137,648)	1,735,168
97:98 증감율	102.3	101.3	102.8	102.5	100.5	101.4	101.2	98.4	98.1	97.8	97.5	97.2	100.2

주) ① 한국유가공업회 집계분 17개사 통계치임. ② () 내는 추정치임.

당 20~30만원을 지급하며 도대를 유도하였으며

③ 지난 6, 7월경 과천, 서울 등에 초유폐기 젓소송아지를 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가 서둘러 8월말까지 시한을 정하여 초유폐기 젓소 송아지를 10만원에 구매하고 도태우 두당 1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상당수의 젓소 감소를 가져왔다.

④ 8월에 엘니뇨현상으로 국내 기상관측사상 유례가 없다는 게릴라성 폭우가 전국을 강타함으로써 낙농가에게도 많은 피해를 준 것들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 후유증 문제도 감소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시유 소비현황

시유 소비상황이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70% 이상이 시유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75% 이상이 시유로 소비되면 국내 낙농산업이 안정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재고분유가 많이 쌓여 불안해진다.

소비둔화와 재고적체로 위기에 처해있는 국내 낙농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원유감산에 이어 우유 소비확대가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가공업자, 정부가 농·소·상·정 우유유통협약 체결, 우유소비촉진결의대회, 가두캠페인, 우유요리강습회, 전국 각급 학교장과 기관장에게 우유소비 협조 장관친서 전달, 리플렛 제작·배포 등 거국적인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충분하였고 소비둔화를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이런 현상은 WTO 발족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시유는 앞으로 국내 낙농산업을 지켜줄 수 있는 효자상품인 것이다.

근년 시유 소비상황을 살펴보면 95년 10월 시유 위생논쟁과 96년 9월 DOP, DBP 검출 보도로 위축되었다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7년 들어 신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97년 11월 IMF 파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위축되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계속 10% 전후의 감소세로 이어져 오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소비둔화와 재고적체로 위기에 처해있는 국내 낙농산업을 안정시키기 위하여는 원유감산에

이어 우유 소비확대가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가공업자, 정부가 농·소·상·정 우유유통협약 체결, 우유소비촉진결의대회, 가두캠페인, 우유요리강습회, 전국 각급 학교장과 기관장에게 우유소비 협조 장관친서 전달, 리플렛 제작·배포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방송과 언론기관의 협조를 얻어 우유소비특별프로 방영, 대담프로 장관 출연, 각종 행사의 신속 보도, 공익광고사업 등 홍보를 적극 시행하여 주었으며 각 지역별로는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조합합동으로 소비촉진 행사를 벌이는 등 거국적인 우유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관

<표 2> 시유 소비현황

(단위 : 톤, %)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96	96,538	93,956	118,240	122,949	129,203	122,196	125,154	119,860	122,695	128,477	116,403	112,674	1,408,345
97	104,268	95,992	128,668	135,583	134,598	128,993	127,771	119,559	125,341	132,669	114,966	106,869	1,455,277
98	92,292	90,633	114,740	120,354	119,811	117,474	115,918	112,325	(113,980)	(119,980)	(106,320)	(100,875)	1,324,702
97:98 증감율	88.5	94.4	89.2	88.8	89.0	91.1	90.7	93.9	90.9	90.4	92.5	94.4	91.0

주) ① 한국유가공협회 집계본 17개사 통계치임. ② () 내는 추정치임.

〈표 3〉 분유재고현황

(단위 : 톤)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94	4,776	5,939	5,013	3,899	3,644	3,446	2,599	3,261	1,929	2,668	1,406	1,435
95	2,288	2,737	3,190	3,578	4,225	3,779	3,798	3,848	3,945	3,746	4,485	6,585
96	8,875	11,012	12,517	13,724	13,902	13,435	12,765	11,332	10,997	9,819	8,660	9,296
97	10,374	12,127	12,616	11,655	11,015	9,911	8,734	7,943	6,948	5,801	5,029	6,254
98	9,071	11,505	13,744	15,181	15,590	15,436	14,378	13,720	10,684	(9,413)	(7,600)	(9300)

주) ① 한국유가공협회 집계분 26개업체 통계치임. ② () 내는 추정치임.

심을 모으는데 충분하였고 소비둔화를 잠재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특히 주무부 장관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 우유소비캠페인을 벌이고 우유에 밥 말아먹는 장면을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전국민에게 보여준 사실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가공업체는 시유가격의 인하(평균 6.7%) 할인판매 실시, 공동홍보사업 참여 등 소비확대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유통업계에서는 자가상표(P.B, Private Brand) 제품으로 유가공업체와 직거래를 터 가격과괴에 나섬으로서 소비자가격을 낮추는데 한 몫을 하고있으며 이러한 업체수가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우유유통 개선과 유통비용 감소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술한 바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유소비가 97년도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은 IMF파동 이후 새로 생긴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 1인당 1만불을 넘던 연간소득이 7년 전 소득인 6천불대로 떨어져 나타난 현상 같으며 IMF이후 새로 생긴 풍속이 일생(생수), 이우(우

유), 삼학(학원)이라고하니 이도 우유소비를 낮추는데 한몫 한 것으로 본다.

실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우유를 끊어야만 했겠지만 다시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빨리오고 국가 경제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

4. 분유 재고현황

시유 소비수준이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듯이 지금은 재고분유 상황이 유가공업체의 경영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과거에는 재고분유는 건조시설을 갖춘 규모가 큰 몇 개 업체만이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비수기에 남은 원유를 사서 분유로 만들어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도 성수기에 가서 원가를 밑지지 않고 팔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UR협상 타결과 WTO 발족으로 수입이 완전 개방된 이후로는 아주 달라졌다. 국내산 분유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원가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비수기에 남은 원유를 큰 업체가 사줄 수가 없게 되었고 농

가로부터 원유를 구입하는 업체는 모두가 임가공해서라도 분유재고를 가지게 되어있어 재고가 많을수록 경영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표 3〉에서 연도별 분유재고 상황을 살펴보면 96년 이후 계속 많은 재고를 가지고 오는 것은 95년 1월 분유수입개방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95년 10월 우유위생논쟁, 96년 9월 DOP, DBP 검출보도, 97년 11월 IMF파동 등으로 우유소비 둔화에서 오는 영향이 더욱 크게 영향을 한 것이다.

금년도 분유재고 상황을 살펴보면 우유성수기인 5월까지도 계속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고 이대로 가다가는 연말에는 25천톤까지도 쌓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5월을 정점으로 서서히 줄기 시작되어 9월에는 하루에 100톤 이상씩 줄었고 이대로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연말에는 만톤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안정되어가는 요인으로는 앞서 거론된 바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주었고 여기에 생산자와 소비자, 관련단체, 기관, 언론, 방송 등



거국적인 참여와 협조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자로 국내산 분유로 지원하여 주었고 식품제조업계에서 혼합분유 수입을 자제하여 주었으며 특히 발효유 제조업계에서 국내산 탈지분유를 전폭 사용해 줌으로서 재고분유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5. 맺는말

금년들어 새로워진 일로는 85년 하반기부터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던 유가공관련허가 및 관리업무가 97년도 정기국회에서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 축산물가공처리

법으로 바뀌므로써 만13년만인 금년 7월 1일 농림부로 이관되어 축산물 가공업의 업무일원화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10여년동안 진통을 겪어왔던 낙농진흥법이 법제정 30년만인 97년8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됨으로서 WTO와 IMF 체제하에서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금년도 일년동안의 준비작업을 거쳐 99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갈 차비를 하고 있다.

WTO 출범 이전에 개정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개선하려는 제도가 조속 정착되어 주기를 바라며, 또 하

나 새로운 사실로는 낙농가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자조금제도의 시작이다.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되어야할 사업이며 앞으로 국내 우수소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세기 마지막해인 새해에는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원년이 되어주기를 기원하고 이해의 유가공산업 회고를 맺는다. ㊦

(필자연락처 : 02-584-3631)

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IMF한파로 낙농육우농가들이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 등 감당하기 힘든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협회가 보다 강력한 활동으로 회원의 대변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모든 낙농육우농가가 협회로 단합하는 길이며 이는 회원가입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도 호당 협회비 3만원을 조기에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社團 法人 韓國酪農肉牛協會